▶▶ 김연아, 아이스쇼 준비 중 ◀◀

이제 예술… "선수 때보다 자유롭게"

올댓스케이트 2019 6~8일 개최
현역 은퇴 이후 첫 쇼 정식출연

현역 은퇴 이후 처음으로 아이스쇼에 정식 출연하는 '피겨여왕' 김연아(29)가 남다른 감회를 드러냈다.

김연아는 6~8일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올댓스케이트 2019를 앞두고 4일 다른 출연진과 함께 리허설을 공개했다.

네이선 첸(미국), 우노 쇼마(일본), 임은수(신현고) 등과 함께 빙판 위에 나선 김연아는 이번 아이스쇼 오프닝곡인 호지어의 '무브먼트'에 맞춰 링크를 누볐다. 동작 하나하나에 신경쓰며 연습을 이어갔다.

김연아는 리허설이 끝난 뒤 "지금까지 함께 해 온 안무가 데이비드 윌슨이 이번에 샌드라 베지과 함께 연출했다. 기대된다"며 "임은수를 포함해 훌륭한 현직 선수들과 함께 스케이팅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 기쁘다.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김연아가 아이스쇼에 정식 출연, 국내 팬들을 만나는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을 마친 뒤 현역에서 물러난 김연아는 그해 올댓스케이트에 출연했다. 이후 올댓스케이트에 나서지 않던 김연아는 지난해 올댓스케이트에 특별 출연해 '하우스 오브 우드코크'를 선보였다.

김연아는 "지난해에는 갑작스럽게 출연을 결정했다. 준비 기간도 짧았고, 2시간 가량 되는 공연 안에서 전과 비교해 많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예전 아이스쇼에서 했던 것처럼 갈라 프로그램을 2개 하고, 다른 공연도 함께 한다. 과거에 했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를 부풀렸다.

선수 시절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와 비교해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사뭇 달랐다. 감정 표현에 한층 중점을 둘 수 있고, 경기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보다 표현 면에서 자유로워 즐겁다고 했다.

5년 만에 정식 출연하는 무대에서 김연아는 2개의 갈라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김연아는 '다크 아이즈(Variations on Dark Eyes)'와 '이슈(Issues)'를 새로운 갈라프로그램으로 선택했다.

김연아는 "'다크 아이즈'는 집시풍의 음악이다. 집시 스타일의 음악을 찾다가 이 곡을 선택하게 됐다. 애절한 표현도 할 수 있고, 장엄하기도 하다. 여러 감정을 담은 멜로디"라며 "'이슈'는 팝적인 음악이다. 어쿠스틱, 리믹스 버전을 합쳤다. 관객들이 가볍게 몸을 흔들며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김연아가 6~8일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열리는 올댓스케이트2019를 앞두고 4일 리허설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0일 오후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아이스쇼 'SK텔레콤 올댓스케이트 2018'에서 김연아가 출연진들과 함께 피날레 무대를 펼치고 있는 모습.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권고

문체부 스포츠혁신위
전국소년체전 개편 등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체육특기자 진학 개선, 전국소년체육대회 개편 등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생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7일 1차 권고에 이은 2차 권고다. 1차 권고에서는 스포츠인권 보호기구 설립을 주문했다. 이번 권고안은 학교스포츠 정상화가 체육계 체계 전환의 핵심이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혁신위는 '공부하지 않는 학생선수'와 '운동하지 않는 일반학생'의 이분법을 불식하고, 승리지상주의적 체육계 체계의 혁신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6개 권고를 밝혔다.

가장 먼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주문했다. 혁신위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 경기실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왜곡된 믿음을 깨고,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 운동 이외의 진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핵심에는 학생 선수가 어떤 경우에도 정규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허용 ▲학생선수의 대회참가, 훈련시간, 전지훈련 등에 대한 1년 계획을 학교교육계획안에 포함하고 위반 시 학교 단위에 책임 ▲경력전환 학생선수 대상 학습지원 프로그램 마련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시 학습 지원 방안 마련 ▲주말대회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권고했다.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도 짚었다. 경기실적 중심의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시행에 앞서 3년 6개월의 사전예고기간을 두기로 했다.

학교운동부 개선도 지적했다. 현재 학교운동부의 운영이 운동 기량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폭력과 성폭력, 장시간 훈련 등 비교육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다양한 형태로 학부모가 운영경비를 조달하는 불법 관행도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훈련은 반드시 정규수업 후에 실시하고, 주중 훈련시간 및 휴식시간 규정 마련 ▲합숙소 전면 폐지 및 원거리 학생 대상 기숙사만 제한적 허용 ▲학부모의 비공식적 비용 각출 및 지원 엄격 금지, 위반 시 관련자 엄중 징계 및 학교운동부 대회 참가 제한 ▲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불법 찬조금 일절 금지, 위반 시 지도자 자격박탈 및 영구제명 조치 ▲학교운동부의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전국스포츠대회 개편도 권고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이 소기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 '우수 선수 조기 발굴'에 치중해온 결과, 과열 경쟁, 강동 높은 장시간 훈련, 정상적인 학교생활 곤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스포츠대회의 성격을 전환해 스포츠 본연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 개편하고, 중등부와 고등부를 참가하도록 하며 ▲기존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스포츠축전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운동부 지도자의 과다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이 부조리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에 따라 학교 운동부 지도자 고용불안정 문제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 학교 운동부 지도자 역할 재설정, 필수 직무교육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일반학생의 '운동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클럽과 운동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종목별 통합 대회 개최 ▲ 매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비율 목표 설정 및 결과 공표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인력자원 등 지원 등도 권고했다.

정부는 혁신위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선수, 지도자 등 체육계,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뉴시스

프로야구, 이달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 달기 캠페인 참여

한국야구위원회(KBO)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처와 함께하는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 달기 캠페인에 참여한다.

나라사랑큰나무는 선열의 애국심과 자유, 희망이 담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을 의미하는 상징물이다.

국가보훈처는 광복 60주년과 6·25동란 55주년인 2005년부터 나라사랑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한 나라사랑큰나무 배지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KBO리그는 이를 널리 알리는데 동참하고자 2012년부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6월 한달 동안 KBO리그 각 구단은 밀리터리 유니폼 착용, 참전용사 시구, 초청 관람 등 다양한 호국보훈의 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뉴시스